2012 문화기상도 〈2〉 공연

한국 연극 흐름 한눈에… 광주서 '전국연극제'

1996년 이후 16년만… 6월 15개팀 참여 열띤 경연

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작 '변두리극장' 등 무대에

올해 광주 공연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전국연극제 개최다. 지난 1996년 이후 16년만에 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는 연극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권위있는 행사로 한국 연극의 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광주연극협회 주관으로 오는 6월 5일~2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3곳에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는 시도 예선을 거친 15팀이 참여, 열띤 경연을 벌인다. 또 폐막식 때는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팀이 특별 공연을 펼치며 해외 초청 공연도 두팀이 예정돼 있다.

총 예산 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극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팀이 2번의 공연을 펼치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해 '5·18'을 테마로 각 극단이 20분 길이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했던 평화연극제는 올해도 비슷한 테마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사업' 선정작들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4회 일정으로 궁동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비언어 마스크 퍼포먼스-변두리극장'은 망해가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 작품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4명의 배우가 20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마스크는 변화를 주는 장치적 요소로 사용된다. 정일공 심성일 이명덕 정태석씨가 출연한다.

2010년 초연됐던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상설공연 버전으로 탈바꿈, 오는 28일부터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약 한달간 장기 공연된다. 이번 무대는 손현정·이승근씨 등 뮤지컬계 스타들과 정순기씨 등 광주 출신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지난 2년간 '환상동화' '보고싶습니다' 등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를 진행했던 광주MBC와 유쾌한 상상은 올해도 우체국보험 기분좋은 극장에서 시리즈를 이어간다. 올해 첫 작품은 부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행복'으로 오는 27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어 로맨틱 코미디 '키스할까요?' 등이 대기중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페스티벌 오!광주'는 올해도 이어진다. 기존의 5·18 창작가요제와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을 통합해 행사를 신설하며, 국립발레단 등이 출연하는 브랜드 공연(6월22일~7월 21일), 정율성국제음악제(10월25일~28일), 한중전통문화교류(7월30일 중국 하남성 정주), 여성합창축제(11월9일~11일) 등을 준비중이다.

재단은 또 시립예술단체들과 협업 과정을 거쳐 '브랜드 공연'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시립극단도 지역 문화계의 관심사중 하나다. 기존의 시립예술단체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탓에 단원 구성 등 합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광주연극협회는 지역연극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6년째 진행중인 삿포로 문화재단과의 교류는 올해부터 단순히 연극 작품을 공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무용협회는 올해 광주 근현대 무용사 편찬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각 장르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 발간을 위해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댄스 스포츠 등 무용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강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6월 광주에서는 16년만에 전국연극제가 열린다. 2010년 제28회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에서'.

지난해 전시공간 광주·전남 12곳 늘었다

무안군립오승우미술관·순천갤러리 등

전국 176곳… 2010년 대비 20% 증가

지난해 무안군립오승우미술관〈사진〉 등 전국에서 176곳의 박물관·미술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지난해 12곳의 전시공간이 오픈,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선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이며, 최근 10년간 최고치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미술관과 박물관을 건립하고, 각종 기념관 문화관도 개관했기 때문이다.

한국미술정보센터 김달진 관장은 최근 서울 아트가이드를 통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무안군립오승우미술관 ▲순천갤러리(갤러리킴세) ▲목포역글로리미술관 ▲강진군아트홀 ▲학영미술관(강진) ▲갤러리생각상자(광주)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 ▲미디어X갤러리(〃) ▲함평군립미술관 ▲목포대박물관 내 옹관전시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스페이스K(광주)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 밖에 지역별 신생 전시공간의 수는 서울 72곳, 경기도 33곳, 대구 16곳, 부산 11곳, 전남 8곳, 울산 7곳 등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생 전시공간의 수 증가와 함께 지역 전시공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지역의 전시공간 비율을 비교했을 때 지역이 2009년 40%, 2010년 49%로였는데 2011년에는 59%로 지역에 더 많은 전시공간이 운영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새해 첫 음악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012년 신년음악회를 마련했다. 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박지용(앙상블 오푸스 상임지휘자)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서는 '황제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트리치 트래치 폴카' 등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곡들이 연주된다.

또 그리그의 '페르퀸트' 조곡 중 '아침'이 연주되며소프라노 길애령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준다. 작곡가 김현옥씨의 신작 '천지인'은 오케스트라와 중후한 매력의 남성 4중창이 어우러진 곡이다. 테너 김백호·강동명, 바리톤 김대수·김제선씨가 함께 한다.

그밖에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이종만씨가 생상스의 '하바네즈 작품 83'을 협연한다.

피날레 곡은 광주시립무용단 주역 무용수로 활동중인 강병창·구윤지씨가 함께 무대에 서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다. 문의 010-3625-5115. 티켓 가격 1만원.

박지용

길애령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문화재단, 문화교육사업 참여단체 공모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6~19일 지역 단체, 기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문화소외 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의 전통과 현대문화, 인물, 역사, 지리, 생태 등 광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은 우대한다.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사업 취지 및 공모 지침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문의 062-670-5762.

전남문화예술재단도 오는 9~13일 '2012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교육수행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콘텐츠로 만든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